

제1절 울진지역 세시풍속의 성격⁴⁵

세시풍속은 해(歲)와 계절, 생업의 전환점 등 특정한 날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연례적 민속을 말한다.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과 문화적 경험을 근거로 인간은 다양한 시간의 단위를 설정했고, 이렇게 체계화된 시간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해 왔다. 전통사회의 시간 단위는 해, 계절, 달, 삽망(朔望), 순(旬), 장(場), 하루, 주야, 나절, 시각 등으로 세분되었고 이 가운데 해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간 단위로 존재했다. 세시풍속은,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단위인 일 년이라는 시간의 도상 위에 해의 바뀜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생업의 전개 과정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날들인 세시의 관행으로서 맛밋한 시간을 출렁거리도록 했다. 말하자면 세시풍속은 일 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문화적 리듬을 부여하는 민속 현상이었다. 전통적인 마을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 개의 요소가 복합된 달력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력으로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 제시해놓은 것이다. 두 번째는 생업력으로서, 농업의 경우 언제 씨를 뿌리고 경작하며 수확하는지를 알려주는 달력이고, 어업의 경우 해산물에 따라 다른 조업의 시기를 알려주는 달력이다. 마지막은 제의력으로서 생업력이 일상적 활동의 핵심이랄 수 있는 생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면, 제의력은 세수(歲首)인 설날부터 설달그믐에 이르기 까지 배치된 비일상의 날들을 가리키는 나침반 노릇을 했다. 생업력과 제의력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운용되었으며, 생업력 상의 중요한 날들이 일정한 비일상성을 바탕으로 제의력 사이에 자리 잡거나 겹쳐짐으로써, 한 해라는 시간을 질서화하는 세시력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세시력은 달력을 근간으로 해서 생업력과 제의력 상의 의미 있는 마디들이 결합한 시간의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시풍속은 공동체 제의와 가정신앙, 기복행위와 놀이, 축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전승의 여건

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전승해 왔다. 따라서 마을민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 생태적 환경이나 생업의 특성, 역사적 경험 등 마을 사회 안팎의 여건들을 두루 살펴야 한다. 세시풍속과 놀이 역시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전승 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리 생태적 여건이다. 울진은

45. 한양명, 2012, 「울진의 세시풍속과 놀이」『울진의 민속총서』3-1,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곳으로 동해와 접하는 연안 지역과 태백산맥 인근의 산간 지역, 그리고 울진읍과 평해읍 일대의 일부 평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농촌과 산촌, 어촌이 두루 분포하지만, 전체 마을 수는 농촌이 압도적으로 많다. 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전체 면적의 칠할 이상을 차지하는 산간지대를 피해 비교적 주거지와 농지 확보가 쉬운 연안 인근지역에 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여건과 함께 살펴볼 것은 생업적 특성이다. 다음은 전형적인 농촌과 어촌의 생업력이다.

<표 4> 북면 신화1리의 농업력

절기 곡식명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소 한	대 한
나락(벼)																								
보리																								
콩																								
서숙(조)																								
고추																								
감자																								
마늘																								
고구마																								
누에																								

<표 5> 기성면 거일2리의 어업력[음력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역												
대게												
오징어												
문어												
가자미												
광어												
노가리												
임연수어												
대구												
우럭												
열기												
방어												
꽁치												
명태												
상어												

앞에서 제시한 농업력과 어업력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음력 10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그리고 7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는 농한기로서 비교적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처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시기에 세시풍속과 놀이가 집중된다. 어업의 경우는 농업에 비해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많지 않다. 대부분 어촌이 농업을 병행한 점을 염두에 두고 농업력과 어업력을 겹쳐서 보면 어촌의 생업은 거의 연중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촌에는 생업과 관련된 주술 종교적 활동이 농촌보다 더 광범하게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울진군이 일정하게 다른 문화를 전승해 온 두 지역이 합쳐진 고을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울진군은 근대 이전까지 울진현과 평해군이라는 독립된 고을로 각각 존재했다. 옛 울진지역은 관동문화권과 가깝고 평해지역은 영남, 특히 안동 문화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두 지역의 문화는, 현지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일정하게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2. 울진지역 세시풍속의 특성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동제를 주목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동제의 시기와 횟수, 그리고 목

적이다.⁴⁶ 동제의 시기와 횟수의 결정에는 마을의 자리 생태적인 환경과 생업, 역사 문화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울진지역의 동제는 그 시기에 따라 ‘절일제(節日祭)’와 ‘시절제(時節祭)’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절일제는 대보름, 단오, 중구, 한식 등의 명절에 지내는 제의이고 시절제는 햅쌀을 천신하는 제미(祭米고사)⁴⁷, 성황당성주생일고사, 마을회관[동회관] 성주생일고사⁴⁸ 등 명절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절일제와 시절제는 각 마을에서 어떤 명절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제미고사와 생일고사를 언제 지내는지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진다.

동제의 시기와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울진군은 크게 내륙권과 연안권으로 대별된다. 이 두 권역은 지리생태적인 조건만큼이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내륙권에서는 대보름과 단오, 중구 등의 절일제가 보편적이지만 연안권에서는 절일제 외에 다양한 시절제가 나타난다.

내륙권은 다시 울진 내륙권과 평해 내륙권, 온정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울진 내륙권의 경우 대보름에만 동제를 지내는 데 비해, 평해 내륙권에서는 대보름 외에 단오와 중구에도 동제를 지낸다. 한편 온정면 일대는 크게 볼 때 평해권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구주령 인근에서는 한식과 설달그믐 등을 제일로 선택하는 특수성이 발견된다.

한편 연안권은 평해 연안권과 울진 연안권으로 나눌 수 있다. 평해 연안권은 대보름제사, 중구제사, 제미고사, 성주생일고사 등 네 차례의 동제를 지내는 것이 기본 형태인데, 마을에 따라 한두 개 생략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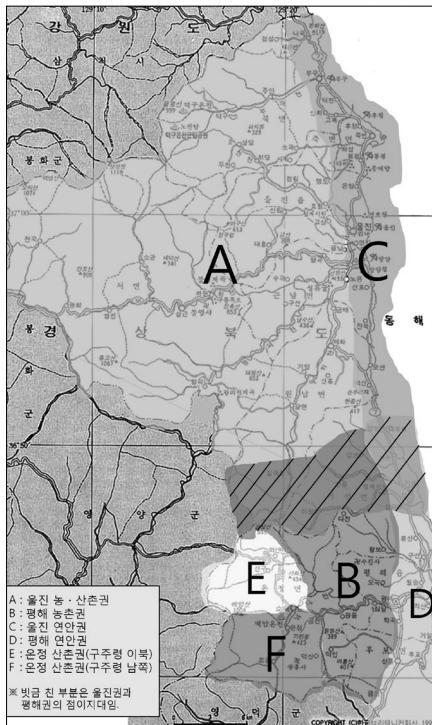
울진의 동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보름형’이다.⁴⁹ 대보름형 동제는 대보름 단수형 또는 시절제나 절일제와 결합한 복수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울진 내륙권에서, 후자는 울진 전역의 연안권과 평해 내륙권에서 보편적이다. 다음으로 온정권에서 볼 수 있는 ‘한식/중구’ 유형이 있다. 이밖에 삼산2리나 황보1리의 경우 각각 중구와 이월 초하루에 동제를 지내기 때문에 단수형의 사례 가운데 시기적으로 특별한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금천3리와 조금1리에서는 각각 동짓달 상정일, 시월보름에 동제를 지내기 때문에 시절제 단수형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46. 아래에서 다룬 동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와 기준의 조사 자료를 [한양명 외, 2010, 『울진의 동제』 I·II, 울진문화원·한수원(주)울진 원자력본부] 함께 참조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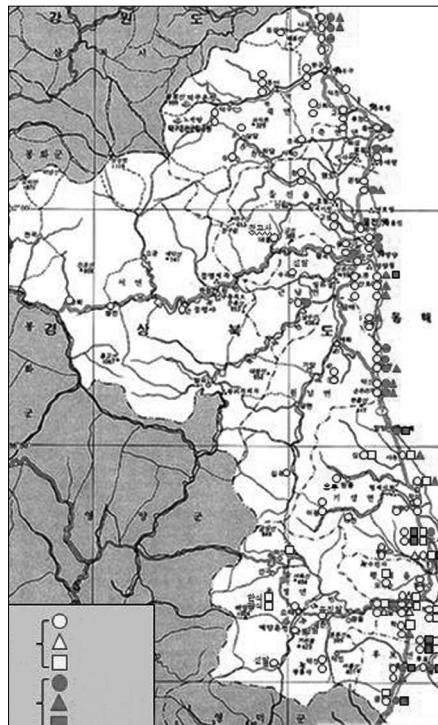
47. [한양명 외, 앞 책]에서는 천혜숙[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5, 『병곡·평해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구간내 민속유적 학술 조사보고서』]과 이종구[2008, 『울진 연안마을 동제의 전승양상과 성격』,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선례에 따라 이 제의를 ‘제미고사’라고 했다. 그러나 “스님이나 사찰에 시주하는 쌀”을 의미하는 제미(齋米)보다는 “제사 때 올릴 밥을 지으려고 마련한 쌀”을 의미하는 제미(祭米)가 현상과 드러내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사에 응한 제보자의 상당수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미고사’로 바꾸어 표기한다. 한편 울진지역에서 제미는 단순히 ‘제사에 쓰는 쌀’이 아니라 동신과 조상, 그리고 성주 등의 가신에게 천신하는 햅쌀을 의미한다. 또한 “제미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천신에 쓸 햅쌀을 장만하거나 햅쌀로 천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제미는 쌀뿐만 아니라 햇곡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서 첫 수확한 밀로 국수를 만들어 조상에게 바치는 것을 두고 “일제미한다.” 또는 “국수제미한다.”고 말한다.

48. 아래에서는 성황당성주생일고사를 ‘성황당생일고사’, 마을회관[동회관]성주생일고사를 ‘마을성주생일고사’로 약칭하고, 두 제의를 통칭할 때는 ‘생일고사’라고 한다.

49. 북면 상당리[1월 3일]나 신림리[1월 8일] 등의 사례처럼 정초에 제사를 지내는 마을도 제법 많다. 이들 사례의 경우 특정 명절에 행해지지는 않지만 모두 설과 대보름을 포함하는 새해맞이축제 기간에 벌어지므로 절일제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동제의 권역 구분



<그림 29> 동제의 분포

이처럼 울진지역의 동제 시기는 대보름 단수형과 대보름+시절제형, 대보름+절일제형, 대보름+시절제+절일제형 등 복수형이 고루 나타나며, 대보름을 제외한 절일제 단수형과 시절제 단수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농산어촌이 고루 분포한 울진지역의 지리 생태적 환경과 생업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